



2021 (사) 한국여성체육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언

개최일정 | 2021년 11월 19일(금), 13:30~16:30

개최방식 | 온라인  YouTube 채널 송출(무관중 개최, 실시간 채팅방 운영)

장 소 | 순화동천 퍼스트아트룸 (서울 중구 서소문로 9길 28)

주최/주관 |  사단법인 한국여성체육학회




사단법인 한국여성체육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2021 (사) 한국여성체육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언

개최일정 | 2021년 11월 19일(금), 13:30~16:30

개최방식 | 온라인  YouTube 채널 송출(무관중 개최, 실시간 채팅방 운영)

장 소 | 순화동천 퍼스트아트룸 (서울 중구 서소문로 9길 28)

주최/주관 |  사단법인 한국여성체육학회

<개회>

사회: 주종미 (호서대학교)

13:30~13:40	• 개회사 • 축사1 • 축사2 • 축사3	이경옥 회장 (한국여성체육학회) 남윤신 원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정진완 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김도균 회장 (한국체육학회)
-------------	----------------------------------	--

<발제>

사회: 권민정 (인하대학교)

13:40~14:00	<발제 1>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인권	민솔희 교수 (나사렛대학교)
14:00~14:20	<발제 2>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교육	김소연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14:20~14:40	<발제 3>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위한 스포츠 과학적 지원과 효과 오임택 연구원 (연세대학교 융합체육과학선도연구소)	
14:40~15:00	<발제 4>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정책	김태현 초빙연구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15:00~15:10 휴식

<종합 토론>

좌장: 김양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15:10~16:10	<토론 1>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인권	정복자 교수 (가천대학교)
	<토론 2>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교육	양한나 교수 (백석대학교)
	<토론 3>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위한 스포츠 과학적 지원과 효과 김태완 팀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과학밀착지원팀)	
	<토론 4>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정책	이현옥 본부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훈련본부)

<폐회>

사회: 정진욱 (동국대학교)

16:10~16:30	• 포스터발표 시상식 • 폐회
-------------	---------------------

개 회 사



존경하는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원 여러분!

〈여성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2021 한국여성체육학회 추계학술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여성체육학회는 1954년에 출범하여 여성체육의 활성화, 여성의 스포츠참여 기본권 보장, 여성 체육인의 권익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연구, 사업, 교류 및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오늘 〈여성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관련된 인권, 교육, 과학적 지원, 정책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공유하여,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연구, 정책 그리고 법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제언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귀한 자리에 바쁘신 가운데 동참하여 주신 남 윤신 한국 스포츠 정책 과학원 원장님, 대한 장애인 체육회 정 진완 회장님, 한국체육학회 김 도균 회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발표를 맡아주신 나사렛 대학교 민 솔희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 김 소연 교수님, 연세대학교 융합체육과학 선도연구소 오 임택 연구원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 태현 초빙연구원님께도 여성 체육학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종합토론을 해주시는 가천 대학교 정 복자 교수님, 백석 대학교 양 한나 교수님,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 스포츠과학 밀착 지원팀 김 태완 팀장님, 대한 장애인 체육회 이천 선수촌 훈련본부 이 현욱 본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호서대학교 주 종미 교수님, 인하대학교 권 민정 교수님,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 김 양례 수석연구위원님, 동국대학교 정 진욱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여성체육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여성 체육인으로서 사회 공헌의 역할과 책임을 짚어보고,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권익을 위한 사회 전반의 여러 문제와 위상을 평가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 **이 경 옥**

학술부장 **김 민 정, 김 양 례**

축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원장 남윤신입니다.

‘2021’이란 단어가 낯설어서 쓸 때마다 ‘2020’을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는데, 어느덧 2021년도 한 달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해가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벌써 올 해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인 동시에 장애인으로서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성인 기부장적 특성과 비장애인 중심 구조에서 이중의 차별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자존감이 저하되고 사회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성적 차별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가진 여성장애인에게 스포츠 활동은 삶의 질의 질 변화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성을 인식하는 활동으로서 중요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 등록된 장애인 수가 263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1%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여성장애인은 111만 1000명이라 합니다. 그러나 2020년 여성장애인의 생활체육참여율은 21.5%에 불과합니다.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이 시점에 한국여성체육학회에서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언”이란 주제를 가지고 추계학술 대회를 개최한 것은 실로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것이 다소 아쉽지만,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의견들이 모여져 한국여성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과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2021 한국여성체육학회 온라인에서 발표해 주시는 발제자님과 토론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준비하신 이경옥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학회회원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원장 남윤신

축 사



안녕하십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입니다.

한국여성체육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한국여성체육학회 이경옥 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지난 2020 도쿄 패럴림픽대회에서는 여성 장애인체육인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보치아 최예진 선수, 탁구에서 서수연, 이미규, 윤지유 정영아 선수가 메달을 획득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욱 많은 여성분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데 동기부여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여성 장애인의 체육 참여를 위해 여성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선수촌 내 인원관리관과 전문지도위원 배치를 통해 여성의 인권 교육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스포츠위원회를 운영하여 여성 장애인선수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장애인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체육활동 참여와 인권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여성체육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정진완**

축 사

존경하는 한국여성체육학회, 체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체육학회 회장 김도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2021년 한국여성체육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10개월간 지속된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
쳤습니다. 그 여파로 지난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로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이는 비장애인의 참여율
(60.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통한 일상 회복을 추진하기 시작하는 지금이, 109만 명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를 통한 체육복지 실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여성 장애인
스포츠의 참여와 정책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 장애인 체육의
발전 방향성에 대한 공론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발제에 응해주신 발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학자 간 다양한 고견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값
진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여성체육학회 이경옥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한국체육회 회장 김도균

Contents

Ⅰ 발 제 Ⅰ

사회 : 권민정(인하대학교)

1.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인권
민솔희(나사렛대학교 교수) 3
2.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교육
김소연(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7
3.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위한 스포츠 과학적 지원과 효과
오임택(연세대학교 융합체육과학선도연구소 연구원) 29
4.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정책
김태현(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초빙연구원) 45

Ⅰ 종합토론 Ⅰ

좌장 : 김양례(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인권**
정복자(가천대학교 교수) 67
-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교육**
양한나(백석대학교 교수) 70
-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위한 스포츠 과학적 지원과 효과**
김태완(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과학밀착지원팀 팀장) 73
-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정책**
이현옥(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훈련본부 본부장) 78

Contents

Ⅰ 포스터 Ⅰ

사회 : 정진욱(동국대학교)

여자 중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만족도와 몰입도에 따른 체육수업 가치인식과 흥미도에 관한 연구

김유신(경민중학교)·조영희(국민대학교) 83

보행 시 정상족의 발목불안정성에 따른 팔 흔들기 무게가 좌우 족압 대칭에 미치는 영향

양서은(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시스템헬스융합전공 박사과정 생)·

이경옥(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시스템헬스융합전공 교수) 85

웨어러블 기반의 스마트인솔 착용 보행의 입각기시 발 유형별, 발바닥 부위별 동원 협응 구조

최문정(엑서코웍)·양서은(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시스템헬스융합전공)·강경훈, 조형진
(주식회사 솔티드)·이경옥(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시스템헬스융합전공) 87

발제 1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인권

민솔희 (나사렛대학교 교수)

발제 1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인권

민솔희 (나사렛대학교 교수)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인권

민솔희(나사렛대학교)

I. 장애관점과 스포츠

1. 스포츠 인권과 장애인 스포츠 인권
2. 장애관점과 스포츠

II.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인권

1. 장애인과 여성, 이중의 차별 및 인권침해
2. 여성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
3.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인권

III. 마무리

I. 장애 관점과 스포츠

1. 스포츠 인권과 장애인 스포츠 인권

- 스포츠와 인권
 -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앞둔 시점, 장희진 수영선수(중학생)
 -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숙소 화재, 8명 사망
 - 2007년 체육시민연대
 - 2008년 KBS시사기획 '쌈' 스포츠 성폭력
 -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가이드라인 제정
 -
 - 2019년 빙상계 성폭력 사건 - 스포츠혁신위원회
 - 2020년 철인 3종 경기 관련

1. 스포츠 인권과 장애인 스포츠 인권

- 장애인 스포츠와 인권
 -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장애인선수에 대한 폭행 및 금품갈취 사건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 장애인체육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연수 : 스포츠 인권 필수 과목
 - 대한장애인체육회 인권지원센터 설치

2. 장애 관점과 스포츠

●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 - 장애 관점

- 종교적 관점 : 장애인은 죄를 지어 신으로 부터 벌을 받은 사람
- 의료적 관점 : 장애를 질병으로 바라보고 장애인은 치료의 대상으로 봄
- 사회적 관점 :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함
- 시혜적 관점 : 장애인은 무조건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 봄
- 전문가적 관점 : 전문가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함
- 당사자적 관점 : 장애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받음(자기결정권 존중)

2. 장애 관점과 스포츠

사회적 관점 :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함

-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함
- '모두를 위한 스포츠' 실현을 위해서는 접근권, 시민인식 등 다양한 사회적 제약 요인을 제거하고 개선해야만 전문 스포츠 선수 외에 모든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가 가능해짐

당사자적 관점 : 장애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받음(자기결정권 존중)

- '우리 없이 우리에게 대한 것은 없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30조 :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30조 :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

-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위한 시설, 환경에 대한 내용 명시
- 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에 대한 명시
- 참여 및 관람 등 향유권, 접근성 보장에 대한 내용 명시

2. 장애 관점과 스포츠

-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었고 이는 장애인스포츠를 포함한 장애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음
- 기존의 장애에 대한 종교적 관점이나 시혜적 관점, 의료적 관점과 전문가적 관점에서 장애인은 수동적 존재였고, '대상화'의 존재였음
-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점과 당사자적 관점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서비스를 받는 모든 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을 중요시 하게 되었음
- 또한 장애를 의학적 차원의 협의의 장애만이 아닌 사회 환경과의 관계에서 오는 광의의 장애로 이해하는 것으로 사회 환경에 따라 장애를 느끼게 되는 정도가 다르고 이는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음
- 이는, 장애인 뿐 아닌, 장애인 내에서도 또 다른 약자가 될 수 있는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의사결정 참여 등에서의 참여를 명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 결국 장애 관점에 따라 많은 것들이 결정되지만, 여전히 장애를 종교적, 시혜적, 의료적, 전문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 점

2. 장애 관점과 스포츠

● 배려, 복지, 권리?

- 장애인,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는 배려인가?
- 장애인,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는 시혜적 복지인가?
- 장애인,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 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는 시혜적 관점의 복지와 배려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음

사회적 '장벽' 속의 장애인들- '왜 극복을 강요 하나요...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 일 뿐인데(경향신문, 2018.03.24)
-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성과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고' 라는 식의 '장애 극복' 시선

Ⅱ.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인권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인권

1. 장애인과 여성, 이중의 차별 및 인권침해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다중응답)

구분	비율(%)
경제적 빈곤(취약 조건)	52.5
장애인(취약 집단)	50.1
학력/학벌	28.9
여성	26.7

인권침해 및 차별의 취약 집단(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0)

- 2019년 국민인권실태조사 : 취약집단/취약조건 구분하여 조사
- 취약집단 : 장애인(59.2%)
- 취약조건 : 경제적 빈곤층(59.1%)

2. 여성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 - 이동권

- 훈련(운동)을 위한 주된 이동수단 및 이용 불편

구분	비율(%)
자가용	60.3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9.7
지하철/전철	7.9
-	-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9)

- 자가용의 경우 남성 64.2%, 여성 47.8%, 그 외의 이동수단은 모두 여성이 높게 나타남
- 실제 현장에서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중증일수록 운동장비를 입고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음.

2. 여성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 - 건강권 및 재생산권

-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거부당하거나 이를 숨긴 경험

구분	비율(%)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지도자가 경기출전/훈련의 이유로 거부함	7.8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이를 숨기고 경기출전/훈련에 참가함	28.9

- 경기출전이나 중요 시합을 위해 피임약을 먹고 생리를 미룬 적이 있다(11.8%)
- 임신계획을 미룬 적이 있다(3.2%)
- 운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할까 봐 낙태를 고민한 적이 있다(0.6%)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9)

2. 여성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 - 폭력

- 폭력 행위자와의 관계 및 발생 장소
 - 행위자별 성별(중복응답) : 남성(84.1%), 여성(25.8%)
 - 폭력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폭력 행위자 성별 : 남성(89.4%), 여성(17.4%)
 - 폭력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폭력 행위자 성별 : 남성(67.7%), 여성(53.1%)
 - 폭력 행위자
 -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응답률이 높았던 폭력 행위자 : 감독/코치 이외 감독/코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 선배선수, 활동지원사, 시설관계자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응답률이 높았던 폭력 행위가 : 동료/후배 선수, 다른 팀의 감독/코치 및 선수, 경기보조자
-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9)
- 동성 사이에서의 폭력 발생 비율이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실제 현장에서 여성장애인 선수에 대한 동료들의 무시, 언어 폭력 등이 발생하며 나이 어린 선수들도 나이가 더 많은 여성 선수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발생.

3.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인권

- 여성 장애인은
- 여성으로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게 되며
- 장애인으로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음
- 학문/현장 관점에서 장애인과 여성이라는 양 측면의 접근이 필요함
- 앞서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
- 차별 및 인권침해를 많이 받는 사람에 대한 응답에서 장애인이 50.1%로, 취약 집단으로 보았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 여성으로서 차별과 인권침해(26.7%)는 물론 장애인으로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접근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향유권에 대한 명시, 별도의 **여성장애인 인권과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조항 명시**

3.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인권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 기회의 평등이 실현되어야 함
- 장애인으로서 겪게 되는 차별 및 인권침해는 남성과 여성을 떠나 발생하는 문제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 스포츠 인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장애인들이 원한다면 누구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스포츠 경기를 관람 할 수 있어야 함
-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 가운데 발생하는 차별과 인권침해 이전에, 스포츠 활동에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장애인스포츠 인권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접근권(편의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접근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인권 친화적인 전문지도자 양성 및 배치, 접근권과 유사하지만 이용가능한 시설과 운동기구, 시민인식 등 변화가 필요함

3.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인권 - 여성 차별 및 인권침해

- 여성 장애인도 비장애 여성과 마찬가지로 폭력,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에 피해 경험이 있음
-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폭력과 성폭력의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음
- 장애인의 경우 자기 권리옹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성지도자의 비율이 낮으며, 장애인스포츠 영역에서도 여성지도자의 비율이 낮음

3.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인권 – 여성 차별 및 인권침해

-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장애요인
- 경제활동으로 바빠서, 경제적 여건, 양육과 가사 등 비장애 여성과 유사한 요인 외에 스포츠 참여에 대한 정보부족(몰라서), 이용 가능한 시설의 부족, 이용 가능한 운동 기구의 부족, 프로그램 부족, 전문 지도자 부족, 이동권 문제, 사람들의 시선 등 장애를 가진 여성이기에 나타나는 제약이 발생함
-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의 연령대가 비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의 연령대에 비해 높다는 점, 여성 장애인 국가대표 역시 선수의 연령대가 높음
- 2021년 도쿄 패럴림픽 최고령 선수가 환갑의 연령을 넘긴 여성 장애인-고령임에도 선수활동을 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장애인 선수의 연령대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 여성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의 경우, 거주 지역 내 훈련이 아닌 선수촌 입촌 훈련 시에 양육과 가사 등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함

Ⅲ. 마무리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
- 접근권(건축물접근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보장 및 지원
-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시설과 운동기구 확충 및 개선
- 국가대표 선수의 장애유형 및 특성, 연령대 등을 고려한 훈련 장소 및 시스템 개선
- 자기 권리 옹호 교육 및 훈련 지원
- 여성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여성지도자 양성 및 배치, 특히 여성장애인 선수 출신의 지도자 양성과 배치를 통한 지도 및 관리(여성 은퇴선수 지원과 연계)

참고 문헌

- 경향신문(2018.03.24). 커버스토리-‘사회적 장벽’ 속의 장애인들, 왜 극복을 강요하나...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 일 뿐인데
- 국가인권위원회(2019).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 국가인권위원회(2020). 20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결과보고서.

발제 2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교육

김소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발제 2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교육

김소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2021년 한국여성체육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교육

김소연, 이화여자대학교

2021.11.19

Challenge

- “double discrimination” (Slocum et al, 2018)
- 삼중 차별: 장애인, 여성, 빈곤 문제 (Swedish Organization of Handicapped Aid Foundation)
- 비장애인 여성 및 장애인 남성에 비해, 젠더 기반 폭력, 신체적·성적 학대와 착취의 위험도 및 가난, 문맹, 실업률이 높고 건강이 상태가 안 좋음 (Clark & Mesch, 2018)

2

주요실태

-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 비율: 장애인 남성 57.3%, 장애인 여성 29.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1인당 연평균 장애인 치료비 본인부담금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115,433원 더 부담 (보건복지부·국립재활, 2020)
- 장애인 여성이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은 32.1%, 남성 16.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 2017)

3

-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단위: 명, %)

구분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전체	37.0	5.9	34.9
남성	46.5	5.8	43.8
여성	24.1	6.1	22.7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0)

4

생활체육

- 문화 및 여가 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스포츠 (축구, 테니스, 수영 등) 장애인 참여율, 여자 6.2%, 남자 10.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2020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주요 결과

□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여부,

여성 (47.5%), 남성 (50.5%)

5

2020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주요 결과 (cont.)

•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 유형

(단위 : %)

	완전 실행자	불완전 실행자	현재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 의지가 있는 자	현재 운동하지 않고 운동 의지가 없는 자
전체	24.2	25.2	35.1	15.5
남성	25.8	24.7	34.9	14.6
여성	21.5	25.9	35.5	17.1

6

• 운동 참여 강도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전체	45.8	48.2	6.0
남성	40.7	51.1	8.2
여성	55.1	42.9	2.0

• 체력에 대한 인식

	좋지 않다	보통	좋다	평균 (5점 만점)
전체	35.0	39.5	25.5	2.87
남성	31.6	40.6	27.7	2.94
여성	40.9	37.5	21.7	2.75

• 체육 시설 이용장소

	헬스시설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포함 종합센터	수영장 단독 시설	야외 축구장	기타
전체	24.4	23.5	15.3	9.3	5.3	22.3
남성	25.4	24.7	13.1	8.1	6.2	22.4
여성	22.4	21.0	19.7	11.7	3.4	21.9

8

• 운동 종목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	웨이트 트레이닝	맨손체조	자전거 (실내/실외)	등산
전체	58.4	9.2	7.3	6.9	6.1
남성	55.6	11.3	6.6	7.6	7.3
여성	63.7	5.3	8.4	5.5	4.0

	수영	요가	줄넘기	기타
전체	3.9	0.7	0.2	7.3
남성	3.0	0.2	0.3	8.2
여성	5.6	1.6	0.1	5.8

9

• 희망 운동 종목

	수영	보디 빌딩 (웨이트 트레이닝)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	자전거, 사이클	맨손 체조	재활 운동	등산	요가	체력 단련 및 생활 운동 그 외 종목	배드민턴
전체	19.6	9.5	8.3	8.2	6.7	6.0	5.9	5.1	4.4	3.7
남성	16.1	11.9	8.0	10.1	5.5	5.6	6.6	1.2	4.0	4.2
여성	25.9	5.1	8.9	4.7	8.9	6.8	4.7	12.5	5.0	2.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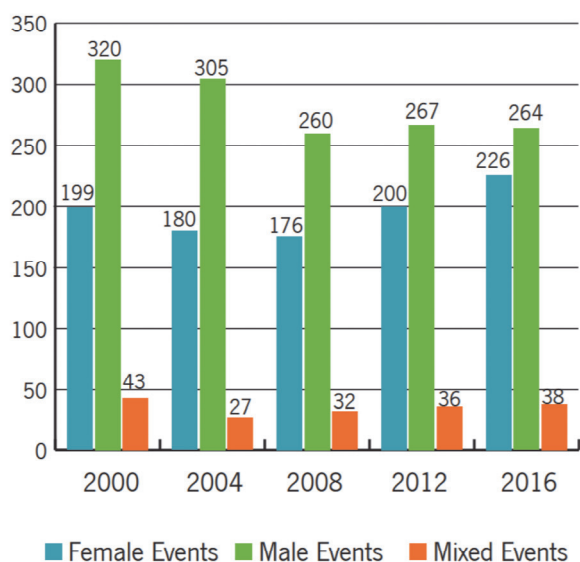
전문 스포츠

패럴림픽 여성 선수 참여율

- 2021 도쿄 하계 패럴림픽, 약 40% (IPC, 2021)
-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약 23%
 - 19개 (38%) 국가에서 여성 선수 비참여
 - 4개국만 최소한 10명의 여성 선수 참여

11

Graph 2. The Number of Paralympic Events by Gender, 2000-2016



(Women's Sports Foundation, 2017)

12

**Table 10. The 2016 Paralympic Games:
Top 10 Delegations for Women Relative to Their
Male Delegations (of delegations with 10 or more
total athletes)**

Rank	NOC	Number of Women	Percentage of Women
1.	Rwanda	12	92.3%
2.	Singapore	9	69.2%
3.	Hong Kong	15	62.5%
4.	Chinese Taipei	8	61.5%
5.	Nigeria	13	59.1%
6.	Hungary	24	55.8%
T7.	Chile	8	53.3%
T7.	Tunisia	16	53.3%
T9.	Netherlands	62	51.7%
T9.	New Zealand	62	51.7%

(Women's Sports Foundation, 2017)

13

스페셜 올림픽 선수 참여율

- 구체적인 정보 부족
 - 2019와 2023 스페셜 올림픽 세계 대회 여성 선수 참가율 증가
 - 스페셜 올림픽 세계 대회
 - 여성 선수 41%에서 50% 증가 예정
 - 여성 선수 및 코치 46%에서 50% 증가 예정

14

여성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 교육 측면

여성 리더십 교육 및 장려

- 은퇴한 장애인 여성 선수 대상으로 코치와 심판 교육 장려
- 여성 지도자 및 심판 양성
- 성공적인 운동 선수, 역할 모델 및 리더로 여성을 선보이기

15

청소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유형에 대해 알리고 교육
- 사회적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리더십 직책에 있는 여성의 긍정적인 이미지 홍보
- 개인적·사회적 책임감 모형을 이용한 스포츠 교육

16

• 여성장애인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확대

- 수영 프로그램 (아쿠아로빅, 수중 걷기 프로그램 등)
- 중·고강도 운동 프로그램
- 중년 장애인 여성 대상으로 한 저항운동이나 복합 운동 (김미예, 김권일, 2019)
- 장애인 스포츠 리그 활성화, 스포츠 교육 모형 이용

17

감사합니다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는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신조, 성적 지향, 연령, 결혼 여부, 장애,
정치적 신념 또는 소속, 국가 또는 사회적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의 권리입니다."

(p.3, Brighton Declaration on Women and Sport, 1994)

18

발제 3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위한
스포츠 과학적 지원과 효과

오임택 (연세대학교 융합체육과학선도연구소 연구원)

발제 3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위한 스포츠 과학적 지원과 효과

오임택 (연세대학교 융합체육과학선도연구소 연구원)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위한
스포츠과학 지원과 효과**

: 영국 장애인수영팀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오 임 택 박사



London 2012 Paralympic Games



오임택 (PhD)

- 2007-2008 한국운동역학회 편집간사
- 2010-2016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박사
- 2016-2017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강사
- 2017-2019 피터헤리슨 장애인스포츠 연구소, 로프버러대학교, 초빙연구원
- London 2012 Paralympic Games, IPC 스포츠과학연구원 - 장애인수영 등급 프로젝트
- TEAM GB Para-Swimming (2010-2014) 경기분석가 & 스포츠과학자





스포츠 과학이란 무엇인가?



VS



?

페달만 밟는 훈련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더 나은 유닛이 되어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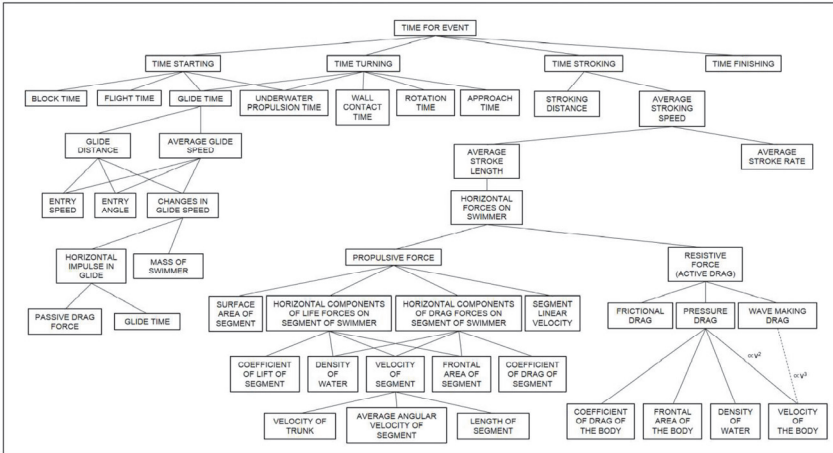
스포츠 과학?

• Sports Science **vs** Sports & **Exercise** Sc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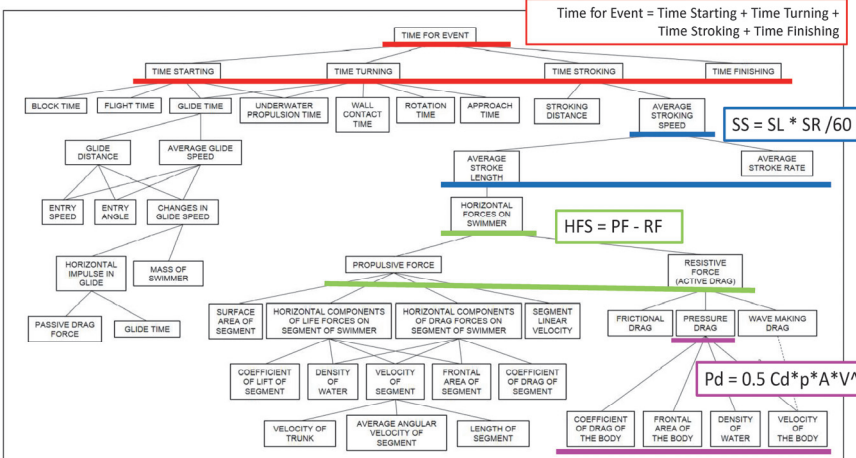
스포츠를 과학적으로 → 훈련과정을 과학적으로!

• 객관적 + 근거기반 + 체계성/변화가능 + 반복/재현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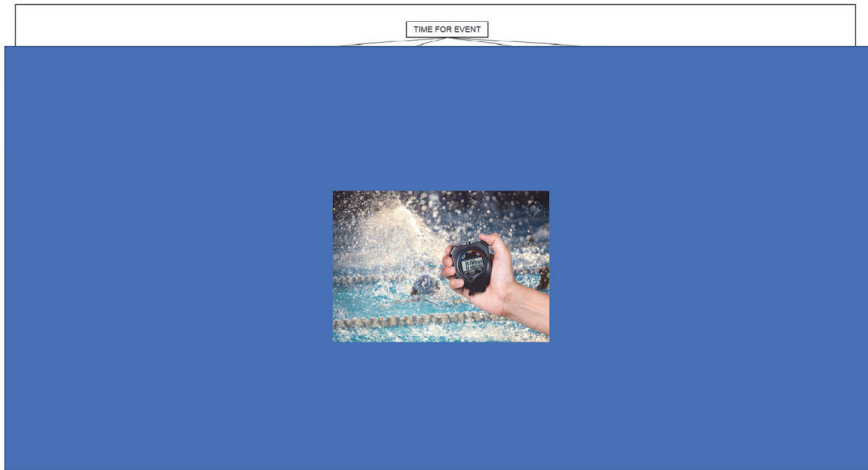
운동역학의 예: 수영 종목의 Deterministic model



운동역학의 예: 수영 종목의 Deterministic mode



운동역학의 예: 수영 종목의 Deterministic mode



예전에는 어려웠음



- 카메라를 수조에 넣어 물속에 넣기도 함.

카메라가 고장 날 위험 감수, 부력 때문에 카메라를 고정시키기 어려움.
고정 시킬 수도 없어서 직접 카메라를 눌러서 몇시간을 고정했음.
(나의 지도교수의 이야기)

- 오늘날의 경우, 성능 좋은 수중카메라가 넘쳐남.



스타트, 턴, 릴레이 선수 교체 연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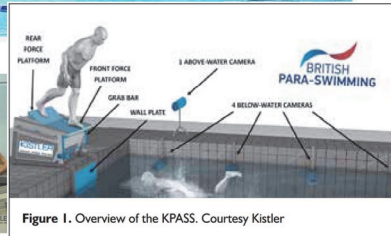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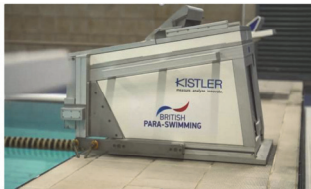


Figure 1. Overview of the KPASS. Courtesy Kist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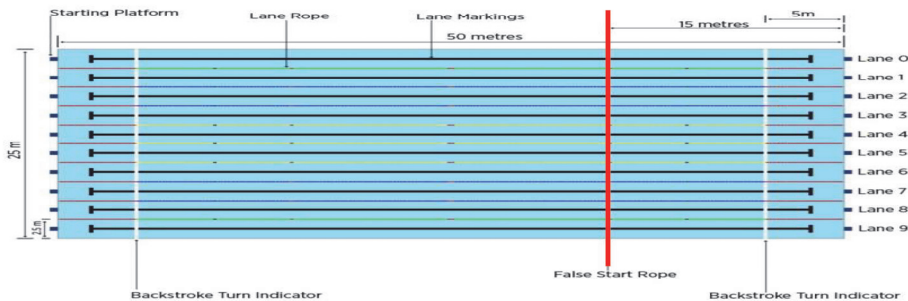
Wave Drag 의 영향



- Wave Drag: 물 표면에서 2.4배까지 더 큰 저항을 가짐

올림픽 선수의 체격을 기준으로 자신의 Chest Depth의 1.8-2.8배의 깊이까지 들어가야만 Wave Drag의 영향을 피할 수 있음 (0.6-1.0 m). (Vennell et al.,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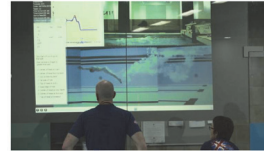
- 스타트 구간 (15m): 그 이상은 잠영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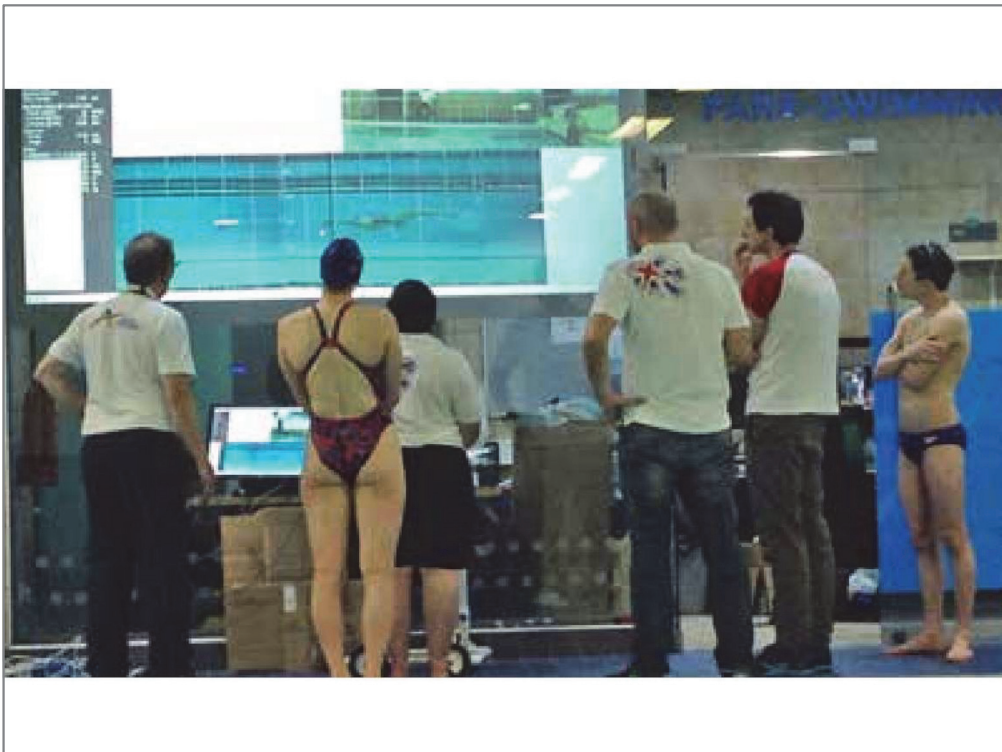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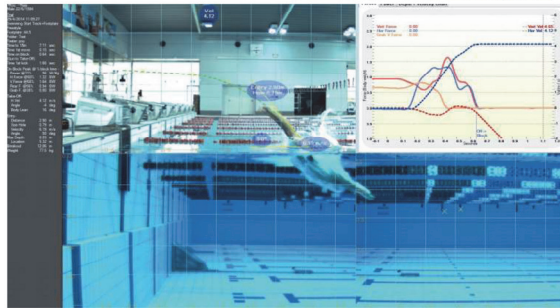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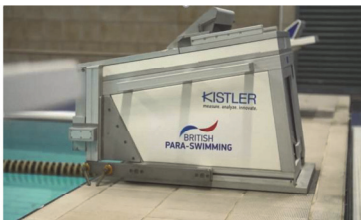
스타트 구간: 단 하나의 가장 빠른 길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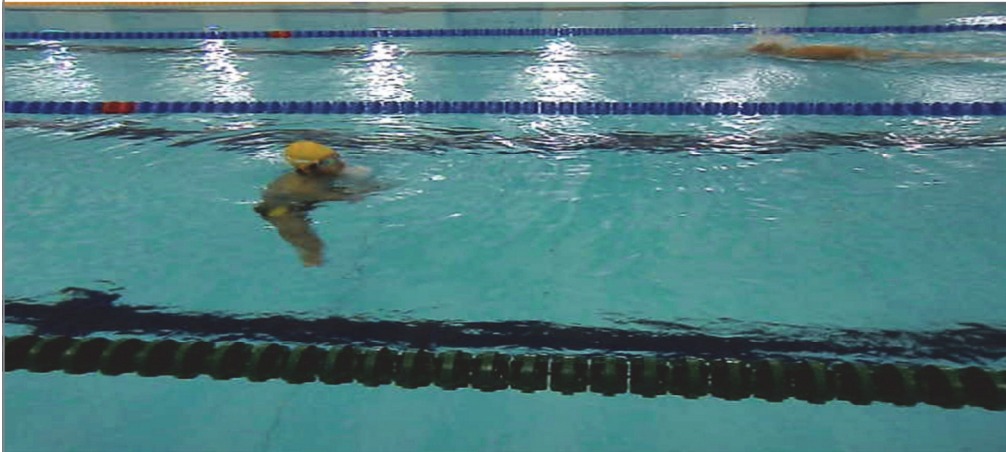
- 점프하는 각도: no Gold-standard in Para-swimming
- 빠르게 입수하여, Wave Drag를 피할 수 있는 최적의 깊이까지 들어갈 것.
- 글라이딩이 감속하는 시점과 킥을 시작하는 시점 사이의 최적화
- 언제 팔을 당길 것인가?
- 15m 지점에 정확히 표면으로 나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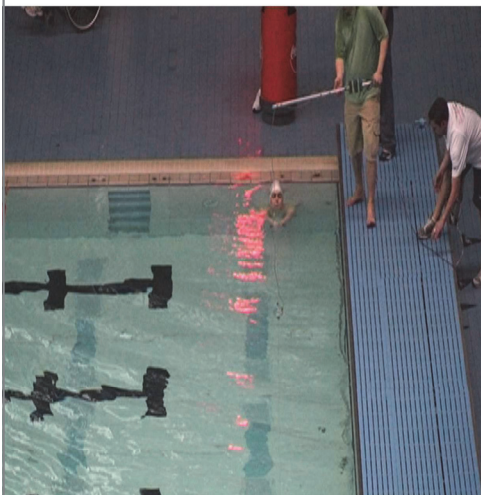
Para-swimming 은 각자의 가장 빠른 길이 다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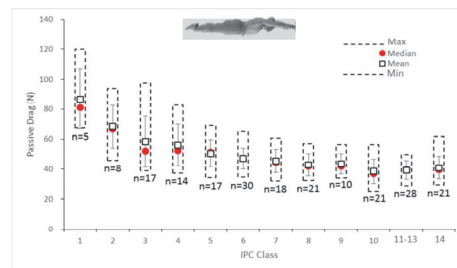
수동 & 능동 저항, 추진력, 근지구력 측정



수동 저항



- 선수의 체격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
 - 체격/장애 수준/ 깊이에 따라 차이
 - 선수의 글라이딩 시 얼마나 깊이 들어갈 지 결정
 - 최적의 유선형 포지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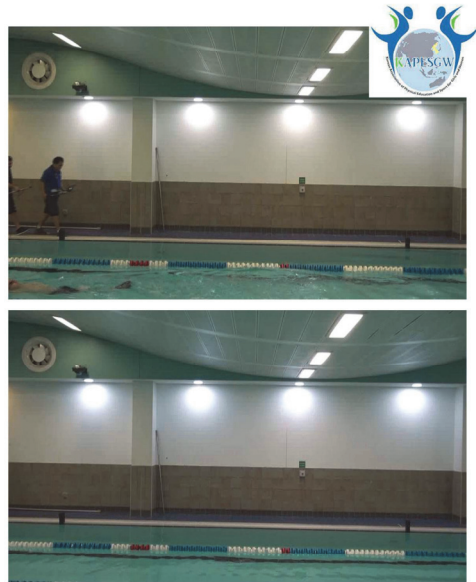


Oh Y-T et al. (2013). British Journal Sports Medicine, 47: 838-843.
(Impact Factor=1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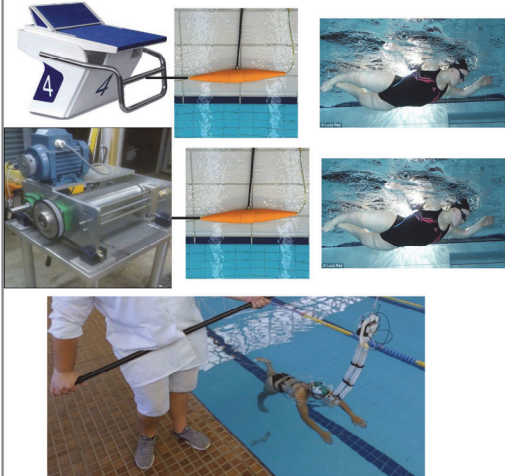
능동 저항

- 등속인 경우 추진력과 같음.
- $AD = PD_{100} + F_{TOW} - (PD_{110} - PD_{100})$
- $AD_{NORM} = AD \cdot BM^{-1} \cdot v_{100}^{-2}$
- 기술 측정 척도:
수동저항과 능동저항의 비율 (%)

-같은 수동저항을 가졌을 때, 더 작은 능동저항을 가질수록 기술수준이 높음.



추진력 (Tethered & Semi-tethered Swimming)



- 선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Max-spurt 힘 (N) 측정
- 선수 최고 속도의 50-80%로 풀어주면서 Max-spurt 파워 (W) 측정
50% Max spurt- 30s test (GB팀 공식 지표로 활용)
- 가스 채집등 생리학 실험과 함께 진행하기에 용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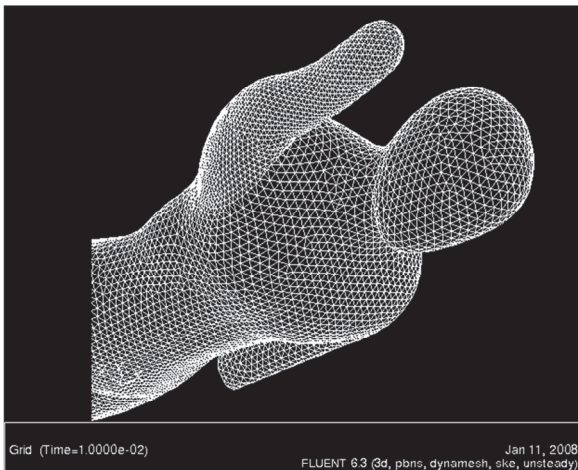
추진력 vs 웨이트 트레이닝 vs 저항



- 추진력과 저항 모두 증가하지만, 추진력이 더 가파르게 증가.
- 추진력은 키우고, 저항은 줄이는 수영선수만의 루틴 필요.
- 고무밴드 및 드래그 수영 훈련 추천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의 활용



-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세, 영법 교정을 통한 유체역학적 이득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자세 영법 교정 여부를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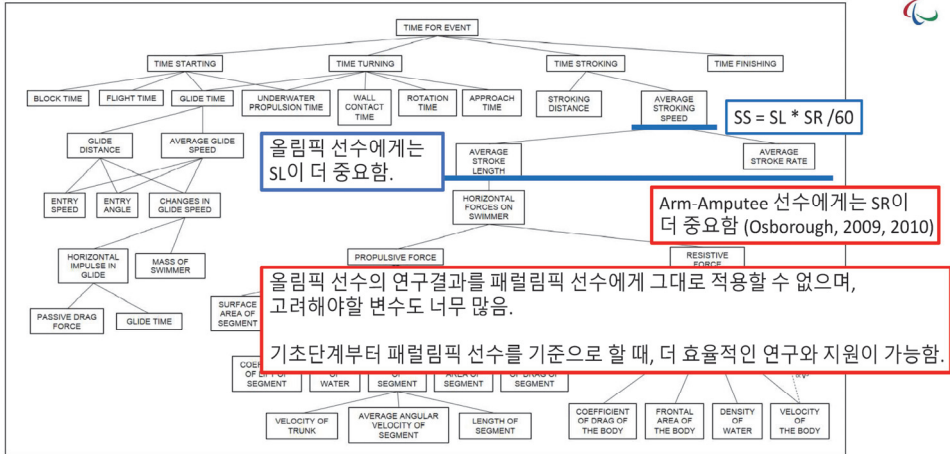
연구원 숫자- GB 수영팀의 경우

- 운동역학 4명 (Kistler 장비 구입시 장비를 다룰 TO 확보와 함께 장비구입이 허락 됨)
+ 시뮬레이션: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와 공동연구
 - 생리학 2명
 - 심리학 1명
 - Tokyo까지, 장애인수영 한종목에만
- World Class Program: 4년간 140억 - 스포츠과학을 기반으로 한 세계최고수준의 훈련프로그램
- Athletes Performance Award: 4년간 32억 - 선수지원금



- 리우 2016 패럴림픽
: 수영 종목에서만 메달 47개, 금메달 16개 포함.
- 2013년 이후 장거리 세계신기록 321번 경신되었는데 그중 12%인 39번이 영국 팀 선수에 의해 경신됨.
-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할 수 없는 수치.
- 영국 "올림픽팀" 수영 선수들의 자발적 요청으로 패럴림픽 지원팀에서 스포츠과학 지원 받음.

왜 Para-Sports 에 독립적인 스포츠과학 센터가 필요한가?



〈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해 간략한 내용 추가 예정 〉



대한장애인체육회
KOREA PARALYMPIC COMMITTEE



BRITISH
PARA-SWIMMING



대한장애인체육회
KOREA PARALYMPIC COMMITTEE

발제 4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정책

김태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초빙연구원)

발제 4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정책

김태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초빙연구원)



—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정책

- I. 여성 장애인스포츠 개관
- II. 여성 장애인스포츠 참여
- III. 여성 장애인스포츠 정책
- IV. 여성 장애인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I. 여성 장애인스포츠 개관



I

여성 장애인스포츠 개관

1. 여성 장애인스포츠 개요

1-1. 여성 장애인스포츠 정의

- 여성장애인스포츠는 신체 일부에 장애 혹은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이 참여하는 스포츠활동을 말함

구분	내용	출처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1. 10. 28.] [법률 제18333호, 2021. 7. 27., 일부개정]
장애인스포츠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를 포함한다)	스포츠기본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80호, 2021. 8. 10. 제정]

I

여성 장애인스포츠 개관

2. 여성 장애인스포츠 참여 관련 법제도

2-1. 국내

- 현재 국내 여성장애인의 사회적,교육적,직업적 욕구와 자원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 제공
- 이러한 서비스들은 여성장애인의 건강한 지역사회 생활 위해 필요하며, 스포츠 등 서비스는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기본법 등 기반으로 함

구분	조문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0호, 2020. 12. 8., 일부개정]	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8.>

I

여성 장애인스포츠 개관

2. 여성 장애인스포츠 참여 관련 법제도

● 스포츠 기본법[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80호, 2021. 8. 10., 제정]

구분	조문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7조 (스포츠정책수립·시행의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2.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3.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것 4.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5.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2-2 유네스코

▪ 유네스코 (2015년 제3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된 개정된 헌장)

모든 사람은 인종, 성, 성적 지향,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이나 어떠한 다른 기준에 기반한 차별없이 체육교육, 체육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기본권을 가진다(헌장 제1.1조), 체육교육, 체육활동과 스포츠에 참여할 포괄적이고, 알맞고 안전한 기회가 모든 사람, 특히 학령 전 아동, 여성과 소녀, 노인, 장애인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장 제1.3조)

II. 여성 장애인스포츠 참여



II

여성 장애인스포츠 참여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정책

1. 여성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1-1. 여성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현황 조사 자료 개요

-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여성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중 2018년, 2019년, 2020년도 자료를 이용

구분	조사기간	표본수(명)	비고
2018	2018년 9월~11월	5,000	
2019	2019년 10월~11월	5,000	문항변경
2020	2020년 11월 ~ 2021년 1월	10,000	표본규모변경 문항변경

II

여성 장애인스포츠 참여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정책

1. 여성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1-2. 여성 장애인생활체육 현황

- 전국 등록 장애인 1만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을 조사한 결과, 2020년 우리나라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은 24.2%로 나타남(이는 2019년 24.9% 대비 0.7%포인트 소폭 감소함)
- 장애인생활체육참여율은 2006년 조사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위축되면서 처음으로 감소함

구분	2018	2019	2020
생활체육 참여율(%)	23.8	24.9	24.2
전년대비 증가(%)	3.7	1.1	-0.7



II

여성 장애인스포츠 참여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정책

1. 여성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1-2-1. 프로그램

-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성이 운동을 하는 목적은 '건강 및 체력관리'가 8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활운동'(13.7%), '여가활동'(4.7%)순으로 나타남. 특히 '건강 및 체력관리'가 전년 대비 29.5% 증가한 반면 '재활운동'은 1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장애인은 '건강 및 체력관리' 목적인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운동 목적에 대해 살펴보면, '건강 및 체력관리'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재활 운동'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건강 및 체력 관리'의 세부목적으로 '체력 키우기'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성인병관리', '다이어트' 등의 순임

운동목적

구분	건강 및 체력관리			재활운동 (치료목적 제외)			여가활동			기타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전체	50.0	53.6	82.9	42.3	41.8	11.0	6.8	4.4	5.9	0.9	0.3	0.2
여성	48.1	52.2	81.7	44.8	43.0	13.7	6.7	4.4	4.7	0.4	0.3	0.0

건강 및 체력관리의 세부 목적

구분	체력키우기			성인병관리			다이어트			기타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전체	78.4	77.1	86.2	18.0	16.5	10.1	1.9	5.7	3.4	1.7	0.7	0.3
여성	78.2	79.0	81.9	18.7	14.5	11.5	1.5	5.7	6.4	1.6	0.8	0.3

II

여성 장애인스포츠 참여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정책

1. 여성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1-2-1. 프로그램

- 여성의 운동종목을 보면 2020년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가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맨손체조'(8.4%), '자전거'(5.5%) 순으로 나타남
- 2019년과 2020년 모두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맨손체조', '등산'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운동 종목

(단위: %)

구분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			웨이트 트레이닝			맨손체조			자전거 (실내/실외)			등산			수영			요가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전체	62.1	58.1	58.4	5.2	4.4	9.2	3.8	3.8	7.3	-	6.3	6.9	2.6	1.7	6.1	8.6	7.2	3.9	-	1.3	0.7
여성	63.2	58.7	63.7	3.8	3.4	5.3	3.7	4.3	8.4	-	5.6	5.5	4.3	2.1	4.0	10.5	7.9	5.6	-	2.3	1.6

희망 운동 종목

(단위: %)

구분	수영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			요가			자전거, 사이클			맨손체조			재활운동			등산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전체	-	8.4	19.6	-	54.2	8.3	-	0.6	5.1	-	2.3	8.2	-	1.3	6.7	-	5.2	6.0	-	1.5	5.9
여성	-	10.3	25.9	-	61.8	8.9	-	1.0	12.5	-	1.4	4.7	-	1.3	8.9	-	3.4	6.8	-	2.2	4.7

II

여성 장애인스포츠 참여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정책

1. 여성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1-2-1. 프로그램

- 운동 시 가장 중요한 보완점으로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비용 지원'(47.6%, 2019년 36.7%)을 가장 많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12%),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11%),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9.8%)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이 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비용 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남.

운동 시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 사항

(단위: %)

구분	비용 지원			보조인력 (이동할 때 등 도와주는 사람)			이동 지원 (교통, 차량 등)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전체	-	31.1	38.5	-	19.8	16.0	-	17.9	12.0	-	7.0	10.5	-	7.0	9.3	-	5.1	7.3	-	11.6	6.3
여성	-	30.5	42.5	-	23.5	16.9	-	14.3	13.6	-	7.9	8.3	-	7.1	6.4	-	5.5	7.4	-	10.3	4.9

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

(단위: %)

구분	비용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			보조인력 (이동할 때 등 도와주는 사람)			기타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전체	27.1	36.7	47.6	6.1	4.5	12.0	13.6	12.7	11.0	14.5	8.3	9.8	6.5	4.4	9.3	7.3	7.3	2.8	24.9	17.8	1.7
여성	25.7	38.1	49.4	6.8	5.0	12.7	13.2	10.0	7.8	14.3	8.3	9.7	7.8	5.2	9.6	7.1	8.0	3.3	25.1	16.4	0.8

II

여성 장애인스포츠 참여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정책

1. 여성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1-2-2. 지도자

- 생활체육 전문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5%(전년(7.7%) 대비 5.2%포인트(p) 감소)로, 코로나 상황이 2020년을 제외한 2018년, 2019년에도 생활체육 전문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 여성장애인의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전문 지도를 받은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전체	7.3	7.8	2.6	92.7	92.2	97.4
여성	7.2	7.7	2.5	92.8	92.3	97.5

지도자 프로그램 필요성

(단위: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			보통			필요한 편			매우 필요하다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전체	9.6	12.9	-	19.1	20.2	-	17.3	15.9	-	37.4	31.7	-	16.7	19.3	-
여성	8.8	13.1	-	18.9	19.6	-	17.8	15.1	-	39.0	33.8	-	15.5	18.5	-

II

여성 장애인스포츠 참여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정책

1. 여성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1-2-2. 지도자

지도자 만족도

(단위:%)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전체	0.2	0.4	0.2	5.2	3.7	1.1	32.1	30.4	12.5	41.7	41.4	61.6	20.8	24.4	24.6
여성	0.0	1.0	0.0	2.5	1.7	0.0	30.5	33.1	10.6	42.4	36.6	56.5	24.6	27.7	26.9



II

여성 장애인스포츠 참여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정책

1. 여성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1-2-3. 시설

- 여성장애인이 주로 운동하는 장소는 '야외 등산로나 공원', '체육시설', '집안'순으로 조사됐으며,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민간체육시설'(5.4%) '공용 공공체육시설'(4.6%) '장애인 전용 공공체육시설'(1.3%) 순임.
- 여성 체육시설 만족도는 2020년 만족 비율(75.5%)이 2019년(60.1%)대비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 부터 만족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 인지도

(단위: %)

구분	알고있다			모른다		
	'18	'19	'20	'18	'19	'20
전체	50.0	52.7	56.4	50.0	47.3	43.6
여성	50.5	51.6	53.8	49.5	48.4	46.2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

구분	평균(5점 만점)		
	'18	'19	'20
전체	3.58	3.62	3.81
여성	3.59	3.63	3.83

주 이용 운동 장소

(단위: %)

구분	공용공공 체육시설			장애인전용공공 체육시설			민간 체육시설			학교/직장 체육 시설			기타			집안			야외등산로/공원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전체	2.68	3.44	4.6	2.44	3.44	1.3	2.61	3.84	5.4	2.61	3.01	0.9	3.24	3.59	0.7	4.45	4.68	8.2	3.17	3/60	31.8
여성	2.74	3.18	4.7	2.45	3.34	1.1	2.85	3.74	4.4	2.85	2.97	0.7	2.92	2.82	0.8	4.44	4.72	8.2	3.18	3.64	31.0

II

여성 장애인스포츠 참여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정책

1. 여성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1-2-3. 시설

-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여성장애인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로 나타남.
- 특히, 신체적 장애가 운동을 하기 어려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나 이동이 어려운 여성장애인들이 집이나 근거리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구분	거리가 가까워서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있어서			시설 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			전문 체육지도자(선생님)가 있어서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체육시설 정보를 알게 되어서			기타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전체	60.7	44.5	36.5	5.2	18.4	25.6	10.2	13.1	15.9	2.8	8.9	12.9	2.8	6.5	5.5	1.0	1.3	0.8	16.7	7.4	2.8
여성	62.1	45.4	33.0	4.9	17.8	22.2	10.4	10.8	19.0	3.0	10.3	16.9	2.8	6.3	6.2	1.0	1.2	0.7	16.0	8.2	1.9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구분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			시간이 부족해서			거리가 멀어서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시설 이용료가 비싸서			남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이 아니라서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18	'19	'20
전체	-	37.7	23.4	23.4	17.9	18.0	17.2	12.9	10.9	13.9	6.4	13.9	4.7	3.9	5.1	-	3.6	3.7	5.0	2.4	3.5
여성	-	40.9	27.4	20.6	15.3	14.4	18.9	11.9	10.8	14.5	5.5	14.1	4.9	4.5	4.7	-	4.0	3.6	4.1	4.0	3.6

II

여성 장애인스포츠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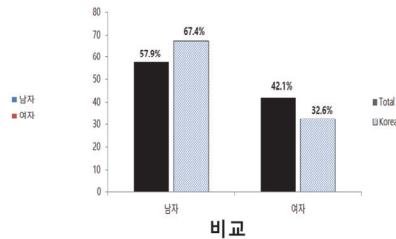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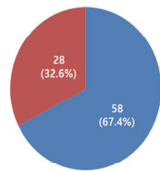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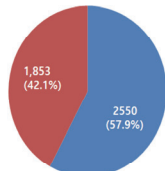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정책

2. 여성 장애인전문체육 현황

● 도쿄 패럴림픽 참가선수 전체 남녀 비율

- 도쿄 패럴림픽 전체 참가선수 성별에 따른 현황분석 결과, 남성 2,550명(57.9%), 여성 1,853(42.1%)인 것으로 약 15.8% 차이가 나타남
- 전체선수와 우리나라 선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남성 67.4%, 여성 32.6%로 여성선수의 비율이 약10%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남성선수(%)	여성선수(%)	전체선수(%)
전체참가 선수	2,550명(57.9%)	1,853명(42.1%)	4,403명(100)
대한민국 선수	58명(67.4)	28명(32.6)	86명(100)



●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선수 하계 등록현황

- 패럴림픽 하계종목(22종목) 선수들 전체 인원은 9455명으로 남자 7148명(75.6%), 여자 2,307(24.4%)명으로 남자선수비율이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종목별 여성 등록선수 중 탁구선수가 439명으로 가장 많고, 축구선수가 2명으로 가장 적음

배구	205	73.2	75	26.8	280
배드민턴	485	72.6	183	27.4	668
보치아	337	67.4	163	32.6	500
사격	150	76.5	46	23.5	196
사이클	156	79.6	40	20.4	196
수영	546	74.2	190	25.8	736
승마	63	73.3	23	26.7	86
양궁	75	81.5	17	18.5	92
역도	355	66.6	178	33.4	533
요트	21	87.5	3	12.5	24
유도	70	76.9	21	23.1	91
육상	653	70.3	276	29.7	929
조정	227	65.0	122	35.0	349
축구	932	99.8	2	0.2	934
탁구	1153	72.4	439	27.6	1592
태권도	252	71.8	99	28.2	351
휠체어럭비	163	94.2	10	5.8	173
휠체어테니스	101	86.3	16	13.7	117
휠체어펜싱	60	73.2	22	26.8	82
합계	7,148	75.6	2,307	24.4	9455

- 패럴림픽 동계종목(6종목) 선수들 전체 인원은 370명으로 남자 290명(78.4%), 여자 80명(21.6%)으로 남자선수비율이 약 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종목별 여성 등록선수 중 컬링 선수가 48명으로 가장 많고, 아이스하키 3명으로 선수비율이 가장 낮음
- 전체적으로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스노보드는 여성선수가 0명으로 나타남

종목	남성(명)	미활(%)	여성(명)	미활(%)	세
스노보드	12	100.0	0	0.0	12
아이스하키	103	97.2	3	2.8	106
알파인스키	35	74.5	12	25.5	47
컬링	95	66.4	48	33.6	143
크로스컨트리	32	71.1	13	28.9	45
바이애슬론	13	76.5	4	23.5	17
합계	290	78.4	80	21.6	370



II 여성 장애인스포츠 참여
2. 여성 장애인전문체육 현황

● 지도자현황

- 전임지도자는 국가대표선수 지도를 목적으로 각 경기단체에 배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임.
- 2018년부터 지금까지는 20개 종목을 제한되었으며, 여자전임지도자 수는 확인할 수 없음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전임지도자 배치인원	22명	20명	20명	20명	20명



II 여성 장애인스포츠 참여
2. 여성 장애인전문체육 현황

● 시설 현황

- 이천선수촌 시설내역: 건축면적 43,067㎡(13,027평),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
- 이천선수촌 시설현황: 종합체육관, 생활관, 다기능체육관, 교육동, 대운동장(육상장, 축구장), 테니스장
- 이천선수촌 이용가능 종목(19종목): 농구, 배구, 배드민턴, 수영, 역도, 펜싱, 태권도, 유도, 골프, 보치아, 탁구, 양궁, 육상, 축구(일반, 시각, 뇌성), 사격, 컬링, 테니스

이용인원(명)	2018년	2019년	2020년
선수 훈련	33,791	29,574	7,894
대관이용(행사, 생활 체육 등)	23,998	21,349	1,432

Ⅲ. 여성 장애인스포츠 정책



Ⅲ

여성 장애인스포츠 정책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정책

1. 여성 장애인스포츠 정책의 개요

- 여성장애인은 정책사업, 기초조사, 학계 연구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제2차 장애인체육진흥증장기계획('13-'17)은 소외계층(여성, 중증, 유형별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난 5년 간('13-'17) 계획대비 추진결과 60% 이하 추진으로 '미흡' 평가를 받음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계획서에도 여성장애인을 위한 개별 사업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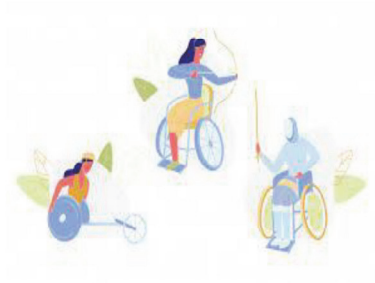


2. 여성 장애인생활체육 정책

2-1. 프로그램

●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용품 지원

- 시도(17개)·유형별(시각, 농아) 생활체육 교실 ('19년) 597개소 → ('20년) 604개소 운영비 지원
- 스포츠소외지역 체력증진 및 장애인스포츠체험 버스 운영(1권역 20개소)
- 시도(17개)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운영비 지원: ('19년) 293개소 → ('20년) 253개소
-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19년) 3개소 → ('20년) 5개소
- 통합체육수업 운영비 지원: ('19년) 80개소 → ('20년) 52개소
*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 동영상 제작(총91편) 및 배부 완료
- 시도(17개) 장애인생활체육 용품 구입관리비 지원
-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휠체어 지원 및 관리



2. 여성 장애인생활체육 정책

2-1. 프로그램

● 여성스포츠 활성화 지원

- 여성장애인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 '올해의 장애인 여성스포츠 상' 운영 및 장애인여성스포츠인 간담회 등(여성스포츠위원회)
- 코로나 확산 대비, 비대면지도 방식 선제 도입으로 수혜자 만족도 제고 및 현장지도 행동수칙 시달로 비대면 지도활동 확대 요청
- 장애인 맞춤형 필라테스 지도 영상 제작으로 현장지도 종목 다양성 확보, 지도자 현장지도용 지도서 배포



III

여성 장애인스포츠 정책
2. 여성 장애인생활체육 정책

2-2. 지도자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교육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 (18년) 577명 → (19년) 762명(185명 32% 증) → (20년) 915명(153명 20% 증)
- 지도인원 확대: (18년) 174,853건 2,078,662명 → (19년) 223,129건 2,575,331명(48,276건 496,669명 증)

교육과목

여성장애인: (18년) 735,746명 →
(19년) 909,848명(174,102명 증)

교육과정

대상	대상	인원	비고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팀장, 생활체육 담당	실무	30명	이론 8H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자	970명	이론 12H, 실기 12H

대상/과정	과목/시간	교육과목
1 실무자이론	4과목 8시간	· 장애인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2H) · 장애인스포츠 행정 관리(2H) · 장애인 스포츠 관련 제도 및 법(2H) · 장애인생활체육 정책 방안(2H)
2 지도자 이론교육	7과목 12시간	· 장애유형별 스포츠지도 전략(2H) · 스포츠 수어(1H) · 스포츠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교 ·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2H) · (성)폭력 예방교육(2H) · 장애유형별 운동처방(트레이닝)(2H) · 장애유형별 운동처방(영양관리)(1H)
3 지도자 실기교육	3종목 12시간	· 골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뉴스포츠, 슌링, 필라테스 중 택 3종목

III

여성 장애인스포츠 정책
2. 여성 장애인생활체육 정책

2-2. 지도자

● 찾아가는서비스 운영 확대

- 비대면 서비스 대폭 제공으로 참여인원 확대 노력
 - 시도별 홈트레이닝 영상 제작 및 제공: 총416개 제작
 - 운동형태 및 부위별로 구성 <홈트레이닝 종합편> 제작(스트레칭/근력 각6편)
 - 화상지도 총7,271회, 59,407명 지도
 - 상담실적: (19년) 10,199명 → (20년) 13,182명(2,983명 증)
 - * 방문상담: 3,859, 인터넷상담: 181, 전화상담: 9,142(코로나 19로 작년대비 6,411건 증)



III 여성 장애인스포츠 정책
2. 여성 장애인생활체육 정책

2-3. 시설

●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조성 확대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확대: ('19) 11개소 → ('20) 13개소 (2개소 증)
- 장애인체육시설 인증사업 BF적용 평가지표 개발 통한 국내 체육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및 장애인 친화 이용환경 구축 유도
- 공공체육시설 개선 위한 장애인접근성 실태조사 실시('20.11.~'21.3.)
 전국 1,498개소 대상 장애인 이용률 및 편의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보유 현황 등 조사
-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원 통한 생활밀착형 체육환경 조성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개선 통한 저소득층 스포츠 향유권 확대
 - 코로나 19 고려 사업지침 개정 및 온라인 사업설명 등을 통해 가맹시설 및 수혜인원(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확대
 * 가맹시설('19년 791개소→'20년 861개소), 수혜인원('19년 2,310명→2,842명)

● 장애인체력인증센터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체력인증센터: ('19년) 6개소 → ('20년) 8개소(전년 대비 2개소 증) 기존 6개소(광주, 대전, 인천, 충남, 전북, 대구), 신규 2개소(서울, 경남)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인의 건강체력 평가시스템 개발연구> 완료로 서비스 수혜 대상 확대: 모든 장애 대상 체력 측정 가능

III 여성 장애인스포츠 정책
2. 여성 장애인생활체육 정책

2-3. 시설

●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원(장애인체육과 업무 지원)

- 반다비 체육센터(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 시도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 대상 홍보 강화, 신청지역에 대한 정량평가 및 현장실사 지원 등('20년: '20년 23개소, '21년 30개소 중 12개소 선정 완료)* 2019~2023년 까지 150개소 지정 지원(매년 30개소)
 - 기선정 단계('19년~'20년) 대상 장애인시설 이용 접근성, 공간 효율성, 시설 운영 합리성 평가를 위한 기본설계 자문회의 개최 및 지원
- 반다비 체육센터 표준운영모델 개발 추진
 - 운영주체, 인력, 프로그램 구성 등 장애인 은퇴선수 일자리 창출 방안(카페 및 휠체어수리점 의무 배치 등) 등에 대한 모델 개발

● 장애인친화 체육환경 구축 강화

- '20년 개발 BF(무장애공간) 평가지표 적용으로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접근성 강화
 - 장애인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대상 각 4개소 등 총 8개소 인증 추진
- 우수체육시설 인증 운영 사례집 제작 및 지자체 배포



III

여성 장애인스포츠 정책

3. 여성 장애인전문체육 정책

3-1. 프로그램

● 국가대표 훈련지원

- 31개 종목(374명) 대상 상시훈련 지원으로 종목별 경쟁력 강화
- ◆ (하계26) 골볼, 농구, 댄스스포츠, 럭비,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5/7인제), 탁구, 태권도, 테니스, 펜싱, 카누, 트라이애슬론
- ◆ (동계5)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노르딕 스키, 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 후보 및 신인선수 훈련지원

- 경기단체 공모를 통한 종목별 후보선수 훈련 지원(5종목 평균 100일)
하계(15종목) 및 동계(5종목) 대상 신인선수 훈련 지원(평균 80일)
- * 전임지도자 배치 종목(20명) 대상으로 신인선수 훈련 지원



III

여성 장애인스포츠 정책

3. 여성 장애인전문체육 정책

3-1. 프로그램

● 체계적인 스포츠 의·과학 지원

- 도쿄 패럴림픽 메달가능 종목 및 선수(9개 종목, 36명) 스포츠과학 집중 지원 실시
 - * KPC 지원(4종목) 휠체어배드민턴,핸드사이클,육상/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5종목) : 보치아,사격,수영,양궁,유도,육상,탁구 지원 실시
 - * 장애유형 및 특성 감안, 스포츠심리 경기 분석 및 체력 측정, 동작 분석 등
- 재활의학 및 정형외과 등 전문인력 운영(축탁의 10, 간호사 2, 물리치료사 4)

장애인선수 육성지원

성과목표	'20년 실적	'21년 추정치	'22년 목표치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여성비율(%)	27.0%	24.1%	27.23%

3. 여성 장애인전문체육 정책

3-2. 지도자

- 국가대표 선수단 인권 보호 및 강화
- 전문지도위원 배치 및 운영
 - 배치인원 및 장소: 전문지도위원 3명 / 이천훈련원
 - 주요역할: 여성선수 전담 지원,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 다생 인권 교육 의무 시행, 국가대표 선수들의 정기적인 면담 및 지도자의 장애인선수 이해도 제고,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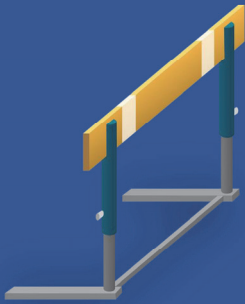
3. 여성 장애인전문체육 정책

3-2. 지도자

- 종목별 전문 인력 배치 및 지도자 활동 지원
 - 종목별 기술 분석(경기분석관 및 멘탈 코치 등)
 - 장비 지원(약싱 코치 및 장비매니저 등) 등 분야별 전문인력 배치(5종목 10명 예정)
 - 국가대표 지도자 월급제 운영(5종목 10명)
- 전임지도자 배치 및 운영 지원
 - 전임 지도자 배치(20명), 운영실적 평가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향후 추진전략 도출 등 전임지도자 활동 지원



IV. 여성장애인스포츠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IV

여성장애인스포츠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정책

1.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정책

여성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여성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

-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육교실(초보자교실, 주부교실, 직장운동부 교실 등) 확대 운영
-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정부 바우처 사업 필요

- 장애인 생활체육 현황 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보완점이 '비용 지원'으로 나타남
- 여성들이 원하는 종목인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 등 여성장애인을 위한 신규 사업 개발

1.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정책

지도자

여성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지속적인 확대 배치

- 여성장애인지도자 생활체육 참여여건 개선

시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확대 추진

- 장애인 체력인증센터를 확대하여 운영
- 여성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 전문체육 여성선수 확대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여성 강세 종목 집중 육성(골볼, 탁구 등) 및 여성체육인 육성

- 기초종목(육상, 수영 등) 육성 시 여성선수 우선 선발
- 경기단체에 여성선수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도 도입

지도자

여성장애인선수 육성을 위한 지도자 파견
- 학교체육 여성운동부 설치 독려

- 시도장애인체육회 소속의 지도자 파견 지원
- 종목별경기단체를 통한 운동부 육성지원

2021 한국여성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감사합니다



종합토론

■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인권

정복자 (가천대학교 교수)

■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교육

양한나 (백석대학교 교수)

■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위한 스포츠 과학적 지원과 효과

김태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과학실착지원팀 팀장)

■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정책

이현옥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시수춘 훈련본부 본부장)

토론 1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인권

정복자 (가천대학교 운동재활복지학과 교수)

모든 사람은 연령, 성별, 계층 등에 구애 받지 않고 평등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스포츠 윤리적 기반과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 제4조 또한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권리이며 모든 인간은 인종, 종교, 정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들의 스포츠 복지에 있어서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들을 의거하여 모든 장애인들은 스포츠 참여 불편함 없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 정도 특성에 맞게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모든 국민은 스포츠를 즐기고,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에게도 스포츠를 즐길 권리, 스포츠활동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여러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하고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불편함 없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데 여러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오늘 발표한 “여성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인권” 주제 내용에서 몇가지 덧붙여서 제언하고자 한다.

장애인스포츠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 스포츠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왔고,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 등도 세우고 수립하고 있지만, 스포츠 소외계층(여성장애인, 중증, 유형별 장애인) 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2013-2015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계획서에서도 여성장애인을 위한 개별 사업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

사를 발표하고있는데, 2021 현재까지도 장애인생활체육참여율 발표에서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생활체육참여율을 발표하고 있고(문화체육관광부, 2021; 보도자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 조사 조차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초 조사가 전무한상태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초조사 혹은 요구 조사 등의 자료나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여성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계획 및 시행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가 전무한 상태이다. 여성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기초 자료 조사 등에서 통합적 자료가 아닌 독립적 자료가 발표되어 여성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기초적 자료가 먼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88'서울패럴림픽이후 한국 장애인스포츠는 눈부시게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 장애인선수들이 패럴림픽에 참가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반면, 장애인선수들이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성별에서 여자선수들의 참가 비율이 매우 낮다. 2020'토쿄패럴림픽에서 참여한 남자선수와 여자선수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경기임원(코치 감독)포함 선수는 총 137명(남 : 97명, 여 : 40명) 였으며, 이중 남자참가선수는 58명(67%) 여자선수는 28명(33%)인 반면, 비장애인 선수의 도쿄올림픽 참가한 남자선수는 131명(56%) 여자선수는 105명(44%) 참가하였다. 이렇듯 여성장애인선수들의 올림픽 참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자선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물론 패럴림픽에 참가하려면 쿼터를 따야 하는 난재가 있지만, 먼저는 여자장애인선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감독 혹은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비율도 거의 없어 스포츠 참여권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에서 장애인의 스포츠활동실태조사가 남녀 구분한 발표 자료는 없지만, 김미혜 & 김권일(2019)의 여성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들이 생활체육 참여율이 21.2%였으며 스포츠참여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의지부족 및 운동을 도와줄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여성 장애인들이 스포츠활동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과 여성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면에서의 환경을 조성 필요하다.

장애인스포츠 대표 기구인 IPC와 KPC 구조 안에 여성스포츠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위원회 활동을 위한 예산이 전무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원회 활동도 전무한 상태이다. “여성장애인 스포츠 참여 및 인권” 토론자인 저는 2018년 아시아패럴림픽(APC)위원회 여성위원회분과 위원이지만, 처음 선임되었을 때 선임되었다는 메일 한번 받아보고 그 이후의 어떤 활동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토론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도 여성스포츠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나 여성스포츠위원회의 별도 예산 편성이 없고, 활동

내용도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논의 하려면, 생활체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여성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통합으로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를 다루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의 체육활성화계획에 있어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생활체육위원회, 전문체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 여성스포츠위원회 위원 중 한 명씩 각 위원회 위원 할당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정책결정과정에 포함시켜야 하고, 함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점에서 여성장애인들의 스포츠참여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토론 2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교육

양한나 (백석대학교 교수)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 장애유무를 가리지 않고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신체적 건강, 사회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성 장애인은 발제자의 발표처럼 장애인, 여성 그리고 경제적 빈곤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여성장애인의 신체활동 참여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실태조사를 보면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62.2%인 것에 비해 장애인은 23.8%이며(김미혜, 김권일, 2019), 발제자가 언급한 것처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생활체육 완전실행사 비율이 낮고 운동 의지가 없는 비율이 높으며 최근 1년간 운동을 실시한 비율이 47.5%로 남성(50.5%)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의 운동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운동방해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시간부족, 불편함, 운동비용, 약한 체력, 도와줄 인력의 부족, 전문시설 부족 등이 운동방해 요인으로 파악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전해자, 김혜진, 2008; Kang, Zhu, Ragan & Frogley, 2007). 특별히 발제자는 이와 관련하여 교육적인 측면에서 '여성 리더십 교육 및 장려'와 '여성장애인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제시하였는데 이 의견에 매우 동감하면서 이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 리더십 교육 및 장려'와 관련하여 최근 현직 또는 은퇴한 여성 선수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스포츠에 대한 전문성, 리더십, 선수로서의 강한 의지와 철학이 더욱더 부각되길 바란다. 이외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은퇴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 및 지도자 양성 과정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하면서 동시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 또는 토크쇼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실시되길 기대한다. 특히 대한장애인체육회 내 '여성스포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여 여성 장애인 선수들의 은퇴 후의 진로와 이들을 통한 여성 장애인스포츠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여성장애인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실태 및 요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급증하고 있는 장애노인의 특성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 가사와 육아 시간 등 주부역할을 하는 중년 장애인 여성의 생활 패턴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 중년기 이후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 등 구체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현장의 실태가 면밀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의 시작은 여학생들의 학교체육이므로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며 신체활동의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학령기 체육수업 경험은 후천적 여성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연경과 이현석(2016)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진정한 평등이라는 정책의 방향 아래서 양적인 확대를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정책 중심으로 집중 시행할 것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여성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국여성체육학회의 학술대회를 통해 장애인 여성의 스포츠 참여에 대해 연구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운동의 효과, 교육,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향후 장애인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김미혜, 김권일(2019).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결과 비교 분석을 통한 운동 비참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7(1), 61-72.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 전혜자, 김혜진(2008). 장애 여성들의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해 요인.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2(3), 83-94.
- 진연경, 이현석(2016).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정책 분석.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0(4), 89-103.
- Kang, M., Zhu, W., Ragan, B. G., & Frogley, M. (2007). Exercise barrier severity and perseverance of active youth with physical disabilities. *Rehabilitation Psychology*, 52(2), 170-176. <https://doi.org/10.1037/0090-5550.52.2.170>

토론 3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위한 스포츠 과학적 지원과 효과

김태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과학실차지원팀 팀장)

첨언

장애인스포츠에서 스포츠과학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그것이 지금의 스포츠과학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이 아니라 여겨졌을 것이고, 그것은 단지 필요에 의해서 존재했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휠체어 육상의 경우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4개의 바퀴를 사용하다 앞 바퀴가 한 개만 사용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다시 휠체어의 길이를 길게 하며 스피드를 길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92년까지만 해도 휠체어의 길이를 제한하였지만, 이후 제한이 풀리면서 선수들의 기록은 나날이 단축되었다. 휠체어는 공기의 저항계수를 줄이기 위한 디자인으로 변화하였고, 탄소섬유가 사용되기까지 하면서 기록 단축은 점차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부분들로 보았을 때 종목, 장애유형에 따라 휠체어의 모양이 바뀌고 그게 바로 경기력까지 이어지도록 스포츠과학의 영역이 필요한 것이다. 보조장비분야에서는 어쩌면 올림픽에서 보다 패럴림픽에서 활용되는 스포츠과학의 범위가 더 넓을지도 모른다. 또한 장애인스포츠에서 등급 분류는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필수 요건이다.

1. 최초의 등급 분류는 의학적 기준으로 분류
2. 1992년 바르셀로나패럴림픽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장애 유형이 아닌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기능적 등급 분류(Functional Classification)가 도입
3. 2015년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보다 공정한 경기를 하기 위해 기존의 등급분류 보완하는 근거기반의 등급분류(Evidence-Based Classification) 연구를 3개 대학에 의해 연구 진행
4. 새로운 등급분류 시스템을 2017년 육상부터 적용 시작, 2018년에는 전 종목에 적용

그 이유는 장애인선수들이 공정한 경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의 장애가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등급분류의 기본 원칙이다.

1) 장애인(지체) 수영 등급분류 요약

◎ 등급 분류 패널

최소 2명 이상의 아래 자격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진행 되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 의학 전문가(의사) 1명으로 선수 등급 분류 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

- 지체 장애 관련 의학 전문가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
- 장애인 수영 전문 지도 경험자
- 운동 해부학, 생리학 및 역학 전공자

◎ 등급 분류 자격 장애 유형

선수는 아래에 나열된 장애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한다.

- 근육 장애: 완전 또는 불안전 전신 및 허반신 마비, 근이영양증, 소아마비, 척추 갈림증
- 사지결핍: 외상성 절단, 골수암 절단, 선천성 사지 기형
- 하지길이차이: 선천성 사지 기형, 외상 성장 제어 장애
- 단신: 연골무형성증, 성장호르몬장애, 불안전골형성
- 고긴장: 뇌성마비, 외상성 뇌 손상 장애, 뇌졸중
- 운동실조증: 뇌성마비, 외상성 뇌 손상 장애, 뇌졸중
- 무정위운동형: 뇌성마비, 외상성 뇌 손상 장애, 뇌졸중
- 수동적운동범위손상: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관절 고정 또는 외상으로 인한 관절 경화 및 수축

◎ 선수 등급 평가 과정

1. 신체 및 손상 평가 (S등급: 총 280 점, SB: 총 270)

① 근력 평가(Muscle Testing) ② 조정 평가 ③ 관절 움직임/동작 범위 평가 ④ 길이 차이 측정 평가 ⑤ 신장 측정 평가

2. 기술 평가 (S/SB 등급: 총 20점)

기술 평가 목적은 선수의 장애가 수영 기법(S-영법 및 SB-영법)에 미치는 수준을 파악하고 관찰하고자 실시한다. 수영 주법 변경 능력, 기능 평가, 추진력, 신체 균형 및 밸런스, 수중 신체 위치 및 자세 그리고 스타트 와 턴의 수준을 평가하고자 실시한다.

- ① 수영주법기능 및 범위 평가(상지/하지) ② 수영주법기능 및 범위 평가 (몸통) ③ 수영 스타트/턴 기능 및 범위 평가

◎ 스포츠 등급 및 점수표

신체 장애로 인하여 활동 제한이 있는 선수의 신체 평가, 기술 평가 및 관찰 평가 (*필요할 경우) 점수를 합산하여 수영법에 따라 등급 분류를 지정한다.

“S” 등급: 자유형, 배영 및 접영 / “SB” 등급: 평영

스포츠 등급	포인트 점수	스포츠 등급	포인트 점수
S1	<65	SB1	<65
S2	66-90	SB2	66-90
S3	91-115	SB3	91-115
S4	116-140	SB4	116-140
S5	141-165	SB5	141-165
S6 ^a	166-190	SB6 ^a	166-190
S7 ^b	191-215	SB7 ^b	191-215
S8	216-240	SB8	216-240
S9	241-265	SB9	241-275

^a = S6/SB6는 단신 선수를 포함한다.

^b = S7/SB7는 단신 선수를 포함한다.

2) 국내 장애인 선수등록 현황

(시·도 등록선수 현황) 2019년 시·도 등록선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538명으로 남자선수 10,084명(74.5%), **여자선수 3,454명(25.5%)**으로 전년('18년 13,039명)도 대비 약 500명 증가되었다.

(종목별 선수 등록현황) 2019년 기준 종목별 선수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선수등록 종목은 1위 탁구(1,457명, 10.8%), 2위 육상(1,362명, 10.1%), 3위 축구(1,194명, 8.8%)로 보고되고있다.

(국가대표 등록현황) 2019년 기준 국가대표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패럴림픽 20개 종목 대상 장애인국가대표 등록선수는 총 194명, 꿈나무·신인선수는 총 77명이다. 하지만 실제 패럴림픽 출전선수는 약 14개종목 80~90명 내외의 선수가 출전하게 된다.

3) GB 수영대표팀 스포츠과학지원에 대한 Q & A

영국의 장애인수영대표팀의 스포츠과학 성공사례 중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운동역학적 접근에서 설명과 지원내용은 현재 장애인스포츠과학 분야에서 벤칭마킹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와 영국간의 어떤 과학적지원의 차이가 무엇이고 어떤 점들이 다른지에 대해 설명이 되어지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몇가지 발표 내용 중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들여봅니다.

Q1. IPC의 근거기반 스포츠등급개발 프로젝트에 참여(수영)하였다고 하였는데요 / **수영에서 스포츠등급개발은 어떤 식의 근거기반으로 분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GB수영팀의 연구 스텝(운동역학 4명, 생리학 2명, 심리학 1명 총 7명?)에 4년간 140억의 스포츠과학 예산이 투자된다고 발표 해주셨는데요? **그럼 한국과 비교했을 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또한 **실제 GB수영팀 지원하는 서포트들은 몇 명이며,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 내 『장애인스포츠과학화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총 6500백만원으로 매년 동일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 스포츠과학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544백만원 투입

패럴림픽에 채택된 장애인스포츠 종목은 총 28개(하계 22개 종목, 동계 6개)종목이지만 대장체와 과학원이 협업하여 지원하는 종목은 하계 9개 종목(보치아, 수영, 양궁, 유도, 사격, 탁구, 육상, 휠체어사이클, 휠체어배드민턴)에 한정 지원
※ 휠체어농구, 골볼, 파라아이스하키 3종목은 과학원 밀착지원팀(TF)사업으로 별도 지원

Q3. **과학적정보제공은 어떤 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그 자료들은 누가 관리하여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영 종목 외에 **다른 종목에선 어떻게 지원되는지** 또한 알고 있는 한에서 부탁드립니다.

Q4. 장애인스포츠에 독립적인 스포츠과학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예로 수영의 Deterministic model을 활용하여 비장애인선수는 **Stroke Length가 중요**, 팔 절단(Arm-Amputee)선수에게는 **Stroke Rate이 더 중요함**으로 장애인선수들에게는 기존의 비장애인선수들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사용하기 힘들다고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점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의 근거기반의 접근설계를 하는 것이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Q5.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장애인스포츠과학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점들이 정책적으로 개선점은?**

제언

장애인스포츠과학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점에서 본 토론자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체 장애인 여성선수들의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선수는 25.5%에 불과함으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선수 필드체력측정항목을 개발하여 신인선수-후보선수 발굴 및 육성강화(National Talent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NTID) 필요

둘째, 장애인스포츠과학지원을 위한 예산은 지난 10년 간 총 6500백만원으로 매년 동일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 스포츠과학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544백만원으로 안정적 지원에 있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적 지원 및 기업펀딩 등을 통한 예산증액 필요

셋째, 장애종목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현장에서 과학적 지원이 가능한 맞춤형 첨단장비 설치 및 운영과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훈련장의 시각화 작업 필요

넷째, 장애인 스포츠과학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이 지원 종목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장애특성을 고려한 전문연구 및 지원인력 증대 필요

다섯째, 스포츠과학정보의 효율적 축적 및 맞춤형 제공과 스포츠과학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관리의 디지털화 필요하며, 해외경쟁국가에서는 스포츠과학 데이터의 디지털화는 물론 통합관리화 필요

토론 4

여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와 정책

이현옥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훈련본부 본부장)

한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특정분야의 주요 관심사와 시간할애 정도는 직업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장애인 스포츠참여 현황에서 생활체육실태조사나 전문체육 종사자의 비율을 보면 여성장애인이 운동을 매개로 한 직업을 가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운동을 통해 신체적 능력과 자신감을 갖추게 되면 직업 혹은 직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례로 최근들어 장애인 직장운동부가 매우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일정부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 혹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공단의 의무고용을 충족하는 요건으로 장애인운동팀의 선수 고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운동을 직업으로 하게 되면 장애, 비장애를 떠나 은퇴라는 시기를 언젠가는 맞게 된다. 은퇴는 기존의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긍정적 의미와 동시에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상실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강은나, 2013). 일반적으로 은퇴는 나이가 들어 중년에서 노년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일어나는 것으로 대략 60~65세 정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운동선수의 은퇴 시기는 일반적 은퇴와 차이가 있으며, 주로 심각한 부상이나 경기력에 따라 빠른 은퇴 시기가 이루어진다.

장애인 선수의 은퇴는 잠정은퇴와 완전은퇴로 나뉜다. 잠정은퇴는 부상이나 체력저하로 인해 선수등록을 하지 않고 1~2년 휴식기를 가지거나 타종목 전환을 위해 생활체육 및 동호회 활동을 하며 선수복귀를 모색하는 시기를 말한다. 완전은퇴는 재활이나 건강을 위해 체육활동에 참여하지만 선수생활을 완전히 은퇴한 것으로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말한다(대한장애인체육회, 2021).

장애인 선수들이 은퇴 이유로는 체력 저하 및 부상, 새로운 목표의 도전을 위한 것으로 나타

났다(대한장애인체육회, 2021). 장애인 선수는 장애로 인해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부상과 체력 저하는 바로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은퇴를 결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장애인 여성선수는 은퇴 시점에 결혼과 출산 육아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지만, 장애인 여성선수는 선수로서의 역량과 출산, 육아 등의 문제가 상존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은퇴선수 기준을 위한 연구(2021)에서 장애인 선수들은 은퇴 후에 지도자, 행정가, 장애인스포츠 관련 직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선수들이 은퇴 뒤 다른 직업을 찾는 일이 쉽지 않으며, 여성 스포츠인들에게는 상황이 더욱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스포츠 지도자들 또한 대부분 비장애인 종목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장애인 선수 출신 지도자가 되기 위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에 2020. 도쿄패럴림픽 출전 14개 종목의 감독, 코치 등 임원 51명 중 4명(감독 3명, 코치1명)만이 장애인선수 출신이다. 반면, 여성 선수 출신은 전무한 상황으로 남성보다 스포츠지도자가 되는 관문이 좁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장애인 은퇴선수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08명(77.2%)이 남성, 298명(22.8%)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내 운동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육인 복지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은퇴선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은퇴선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체육인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체육인지원센터는 장애인 은퇴 및 예비 은퇴선수의 안정적인 사회참여를 위하여 경력개발 및 진로교육 등 취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은퇴선수 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업 지원 서비스, 지역별 거점 교육 등이 있다. 그 중 여성선수의 참여율은 2018년 27%(12명/45명), 2019년 32%(32명/101명), 2020년 38%(41명/108명), 2021년 10월 말 현재 15%(8명/52명)로 나타난다.

특히 체육인지원센터는 장애인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스포츠체협형 교육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선수 출신이 자신의 종목을 유소년들에게 지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장애인스포츠를 알리며 인식개선사업을 하는데, 현장의 경

험을 보면 여성지도자가 상대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는다. 이 사업은 현재 선수촌이 있는 이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문체부는 물론 교육부, 복지부 와도 협업해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여성장애인 강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애인 여성선수들의 선수가 가진 지원·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은퇴선수의 진로가 밝다면,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장애인이 늘어나고 운동을 통해 건강까지 얻은 여성장애인의 생애 주기 자존감 회복과 경제적 독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포스터

여자 중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만족도와 몰입도에 따른 체육수업 가치인식과 흥미도에 관한 연구

김유신(경민중학교)·조영희(국민대학교)

보행 시 정상족의 발목불안정성에 따른 팔 흔들기 무게가 좌우 족압 대칭에 미치는 영향

양서은(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시스템헬스융합전공 박사과정 생)·

이경옥(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시스템헬스융합전공 교수)

웨어러블 기반의 스마트인솔 착용 보행의 입각기시 발 유형별, 발바닥 부위별 동원 협응 구조

최문정(엑스코웍)·양서은(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시스템헬스융합전공)·

강경훈, 조형진(주식회사 솔티드)·이경옥(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시스템헬스융합전공)

포스터

여자 중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만족도와 몰입도에 따른 체육수업 가치인식과 흥미도에 관한 연구

김유신(경민중학교)·조영희*(국민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중학교에서 운영되는 여자중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만족도와 몰입도를 조사하고 각각의 결과에 따른 체육수업에 대한 가치인식과 체육수업 흥미도를 분석하여 학교스포츠클럽과 체육교과와의 연계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스포츠클럽과 체육정규수업 두 가지 활동 모두를 활성화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초자료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한 여자 중학생 148명(1학년 115명, 2학년 124명, 3학년 148명)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만족도(17문항), 몰입도(23문항) 설문지는 서응철(2015)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을 사용하였다. 체육수업 가치인식(19문항)과 흥미도(14문항)에 대한 설문지는 박상준(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설문은 5단계의 Likert 척도(1:매우그렇다~5:전혀 그렇지 않다)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처리방법은 참여기간/학년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고, 변수들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만족도 및 몰입도 요인이 체육수업 가치인식과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스포츠클럽 참여기간/학년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만족도($p<.001$) 및 몰입도($p<.01$), 체육수업 가치 인식($p<.001$)과 체육수업 흥미도($p<.01$)에 차이가 있었다. 참여 기간이 적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모든 요인에서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둘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만족도, 몰입도, 체육수업 가치인식, 흥미도와의 상관관계는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p<.01$)를 보였다. 특히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몰입도 간에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체육수업 가치인식에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몰입도보다 영향을 주며, 체육수업 흥미도에는 학교스포츠클

* choyh@kookmin.ac.kr

럽에 활동에 대한 몰입도가 만족도보다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론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체육수업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교스포츠클럽의 영향이 높게 형성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기에 앞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하여 체육수업과 연관을 짓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포스터

보행 시 정상족의 발목불안정성에 따른 팔 흔들기 무게가 좌우 족압 대칭에 미치는 영향

양서은(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시스템헬스융합전공, 박사과정 생) *
이경옥*(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시스템헬스융합전공,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보행 시 발목 불안정성에 따른 정상족의 팔 흔들기 무게가 좌우 족압 대칭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것이다. 실험참여자는 정상족에 발목안정성을 가진 7명과 발목불안정성을 가진 8명, 총 15명이다. 발목불안정성은 설문지(CAIT)를, 발 형태는 RCSP를 이용하여 정상족을 판별하였다. 보행 시 팔 흔들기는 자연스러운 맨손 흔들기와 500ml 물병을 손에 쥐고 무게의 원심력을 이용하는 적극적인 팔 흔들기의 두 가지이다. 족압 변인은 발바닥 부위별 최대압력, 압력중심이동 곡선의 속도, 압적이다. 발바닥 부위는 후족, 중족, 발 허리뼈1~5, 발가락1~5번의 총12부위로 분류하였다. 통계는 Window용 SPSS 22.0을 활용하여 Wilcoxon의 부호순위 검정으로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α .05로 하였다. 발목 안정성 집단의 맨손 스윙 시 오른발, 왼발의 최대압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압력중심이동속도는 전체 ($Z=-1.963c$)에서 왼발(447.50 ± 267.03)이 오른발(360.00 ± 163.00)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압적은 발허리뼈5($Z=-2.100c$)와 전체($Z=-2.240$)에서 오른발(54.84 ± 24.60)(9.05 ± 3.05)이 왼발(35.49 ± 16.11)(2.78 ± 2.67)보다 유의하게 컸다. 반면 발목 불안정성 집단에서의 최대압력은 5번째 발가락($Z=-2.226c$)에서 왼발보행(36.43 ± 34.24)이 오른발 보행(23.57 ± 33.13)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압력중심이동속도는 5번째 발가락($Z=-2.375c$)에서 왼발(588.57 ± 41.40)이 오른발(185.71 ± 277.54)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압적은 좌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무게 팔 흔들기 보행시 발목안정성집단은 최대 압력, 압력중심이동속도, 압적 모두에서 오른발과 왼발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발목불안정성 집단의 무게 팔 흔들기 보행시 좌우 최대 압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압력중심이동속도는 발허리뼈1($Z=-1.236c$)에서 왼발(620.00 ± 10.66)이 오른발(514.29 ± 148.64)보다 유의하게 컸고, 압적은 발허리뼈1($Z=-2.197b$)에서 오른발(142.86 ± 22.30)이 왼발(86.40 ± 36.20)보다 유의하게 컸다. 일반적으로 정상인의 보행을 분석 할 때 좌우 대칭을 가정하고 한쪽 발만 분석을 한다. 그러나 어떤 압력 변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발목 안정성 여부도

* cyhrjw@hanmail.net

좌우 발의 비대칭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발목 안정성 여부보다 팔 흔들기시 무게를 더하는 보행이 좌우 족저압의 대칭을 이루는데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좌우 대칭적인 보행을 하기 위해 무게 팔 흔들기를 권한다.

포스터

웨어러블 기반의 스마트인솔 착용 보행의 입각기시 발 유형별, 발바닥 부위별 동원 협응 구조

최문정(엑서코웍)·양서은(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시스템헬스융합전공)·강경훈,
조형진(주식회사 솔티드)·이경옥*(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시스템헬스융합전공)

보행은 일상생활 이동에 필수, 동적 균형 및 일상생활 기능을 측정하는 항목이다. 보행 시 족저압력은 정상인이라 하더라도 발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발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웨어러블 기반의 스마트인솔을 착용한 보행시 입각기 동안에 발형태에 따른 발바닥 부위별 동원 협응구조의 차이를 구명하는 것이다. 피험자는 RCSP 방법을 이용하여 정상족, 편평족, 요족으로 나누었다. 피험자는 8m 주로 위를 100bpm의 속도로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게 충분한 연습을 한 후, 다섯 번째 걸음의 입각기 동안의 최대 압력을 3회 측정하였다. 각 발 형태별로 대표적인 최대압력 패턴을 나타내는 자료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보행 시 족저압력은 신발의 구조와 재질에 영향을 받으므로, 신발로 인한 오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마트 인솔을 발바닥에 직접 부착하였다. 스마트 인솔의 족압 센서는 종골, 1, 5번 발 허리뼈, 2번 발가락에 위치한다. 보행시 입각기는 발 뒤꿈치 착지기(heel strike), 발바닥 접지기(flat foot), 발뒤꿈치 들림기(heel off), 전족 들림기(forefoot off), 발가락 밀기(toe push off)의 5 구간으로 나뉘어야 정상 보행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족은 발 뒤꿈치가 착지하고, 5번째 발허리뼈, 첫 번째 발허리뼈, 두 번째 발가락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동원 되고, 발 뒤꿈치가 들리기 전에 첫 번째 발가락이 동원되는 협응을 보여 준다. 반면, 편평족은 발뒤꿈치 착지기가 없이 발바닥 접지기로 시작 한다. 이는 배측 굴곡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편평족과 요족은 발 뒤꿈치, 5번째 발허리뼈, 첫 번째 발 허리뼈만 순차적으로 동원되는 협응을 보이고, 발 뒤꿈치가 완전히 들리고 난 후 두 번째 발가락이 동원되거나, 아예 두 번째 발가락은 동원되지 않아 발가락을 사용이 제한되는 협응을 보인다. 요족은 발뒤꿈치 착지기시 부하율/loading rate)이 가장 크다. 정상족은 발뒤꿈치가 완전히 들리기 전에 두 번째 발가락이 동원되나, 편평족은 발뒤꿈치가 들리고 난 후 30ms~90ms뒤에 두 번째 발가락이 동원된다. 편평족은 입각기 동안에 두 번째 발가락의 동원시간도 늦게 일어나고, 짧은 시간동안만 사용 한다. 그러므로 스마트 인솔은 발 형태에

* Corresponding Author: yikok@ewha.ac.kr

따라 최대 족저 압력의 차이를 보이며, 나이가 발바닥 부위별 순차적인 동원의 협응 유무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발 형태에 따른 족저압 특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4개의 센서만을 이용하고, 센서의 위치로 인한 한계가 있다.

2021 (사)한국여성체육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2021년 11월 15일 인쇄

2021년 11월 19일 발행

- 발 행 인 : 이 경 옥
 - 발 행 처 : (사)한국여성체육학회
 - 인 쇄 처 : 레인보우북스 Tel. 02) 2032-8800(代)
-

